

연 2000만명 치과 치료… 진료비 1.5조

# 구멍난 구강보건… 관리 어떻게?

서울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DDP서 8일·9일 양일간 개최  
치아상담·보건교육·공연 등 마련

"정기적인 구강검진·스케일링 필요"

대한민국의 구강관리에 적신호가 들 어왔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의 질환에 시달리며 진료비도 크게 늘고 있다.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를 오는 8, 9일 양일간 개최한다.

우리나라 양대 구강병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은 연간 약 2000만명이 치과병의원을 찾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중 하나다. 진료비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외래진료 환자가 많은 질병(외래다빈도질환)' 2위를 기록했다. 환자 수는 2013년에 1082만5914명에서 2016년에는 1419만295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치아우식'도 외래환자도 2013년 기준 525만6306명에서 2016년에는 568만6451명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등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습관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이 필수라고 권고한다. 올바



서울치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포스터.

른 양치습관을 위한 '333 법칙'은 하루 3번, 음식 섭취 후 3분 내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다수의 연구 사례와 논문이 발표되는 등 '구강건강이 곧 건강한 삶'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치과의사회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오는 8, 9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DDP)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건치아동 시상식을 포함해 구강검

진 및 상담부스, 치아벳지 만들기 등 각종 홍보 및 체험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펼쳐진다. 서울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동호회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 등은 시민들과 치과인들이 한데 어울어지는 축제의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강보건의 날인 내달 9일에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구강검진, 치태검사, 구강보건 교육, 장애인치과치료 안내,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치주질환 관리 및 상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 등 각종 홍보부스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주축으로 서울시 건강증진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대한치주과학회, 대한구강내과학회 등 치과의사와 지방자치단체, 치과 전문학회가 총망라된 이 날 행사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치과의사회 회원인 치과의사들의 무료상담과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이번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가 1천만 서울시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치과의사회 4700여 회원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팅크웨어, 연동성 높인  
매립·거치형 내비 2종

팅크웨어는 매립 또는 거치가 가능한 7인치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LS500T'와 매립이 가능한 8인치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M500' 등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제품은 보다 효율적 경로안내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자지도인 '아이나비 익스트림(Extreme) 3D'는 800만 동의 건물과 주요한 지형지물을 현실감 있게 3D 렌더링 처리해 직관적인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한다. 또 사용자의 운전 패턴 및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안내와 다양한 지도 뷰 모드를 지원, 내비게이션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운전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아이나비의 빅데이터와 통신을 결합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티링크(T-link)'도 지원한다. 국내 최대 25만개 도로 링크의 정보를 반영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라이브 검색, 유가정보, 안전운행 구간 등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경로안내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블루 투스를 통한 별도 아이나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도 가능하다. 연동 시 목적지 및 남은 거리, 예상도착시간 등 내비게이션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동일하게 제공돼 운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안내를 지원한다.

가격은 7인치 내비게이션이 ▲16G 25만9000원 ▲32G 28만9000원이며 8인치 내비게이션은 ▲16GB 33만9000원 ▲32GB 36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 "父子 손잡고 미세먼지 잡았다" 99% 박멸 '친환경 프라이팬' 출시

동양나토얀 '후후' 프라이팬

측정시험서 연소율 감소 입증

아버지와 아들이 대표적인 주방용품인 프라이팬을 개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그냥 프라이팬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냄새, 연기를 잡는 친환경 프라이팬 '후후'다. 동양나토얀의 김기홍·김민호 부자가 주인공이다. 아버지는 최고경영자(CEO)를, 아들은 실장을 각각 맡고 있다.

"생선구이 등의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 일본에 프라이팬을 수출하다 바닥에 흙을 만들어 물을 부을 수 있도록 하면 덜 타고 생선 등이 죽도록 하겠다는 생각에 착안해 제품을 만들게 됐다. 여기에 더해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닥으로 내 보낼 수 있도록 손잡이 부분에 흙을 만들어 아예 가스불 등에 (연기를) 테울 수 있도록 제품을 업그레이드했다." 아버지 김기홍 대표의 설명대로 구조는 간단하다.

프라이팬의 뚜껑을 뒤집고 생선이나 고기 등을 굽는다. 음식이 익으면서 나오는 연기는 흙을 통해 바닥으로 내려간다. 이 연기는 가스불에 닿으면서 연소된다.

실제 부자가 함께 개발한 친환경 프라이팬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동양나토얀 김기홍 CEO가 친환경 프라이팬 '후후'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시험을 한 결과 미세먼지는 99% 줄어들고, 냄새는 10분의 1로, 벤젠은 3분의 1로 각각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요리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발암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후후는 이런 유해물질의 걱정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실장은 "후후는 현재 7종을 출시해 고객들의 선택폭을 넓혔다"면서 "앞으로도 제품개발과 독자적인 기술로 일반 주방용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과 아이디어를 접목한 기능성 주방용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헬스·중소기업

중진공-IBK기업은행-장학재단

# 중소 청년일자리 중점 육성 '맞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장학재단, IBK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일자리 중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세 기관은 중소벤처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협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사업 연계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공유 ▲중소벤처기업·청년 인센티브 강화 등의 업무를 적극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형 맞춤인력을 양성해 우수 인재풀을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이들 중소벤처기업 취업예정자

1000여명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진공의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과 기술사관육성사업은 졸업을 앞둔 청년이 중소벤처기업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139명의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했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젊은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으로 많이 유입돼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발전의 동력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이대목동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최고 등급

이대목동병원(사진)이 최근 발표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하반기(7월~12월)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6기관, 2만6,592건을 대상으로 7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주요 평가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았으며, 구성 평가에서도 뇌졸중 치료 관련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우수 기관으로 평가돼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 신경과·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재방사선과·의료진과 항응고 제 전문 약사, 퇴원 후 교육 담당 전문 간



호사 등 관련 의료진들이 뇌졸중센터 한곳에서 뇌졸중 집중 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뇌졸중 환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외래 센터가 아닌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설팀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응급 환자 치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 중소공제기금 대출기업에 이자 지원

중기중앙회-천안시 1~2%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천안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자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간 이번 협약체결로 천안시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 1%, 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총 지원규모는 2000만원이다.

이자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타 기초지자체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김승호 기자

## 에이스침대 평택에 12번째 '에이스 스퀘어' 오픈

에이스침대는 12번째 에이스 스퀘어(ACE SQUARE) 매장(사진)을 경기 평택에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이스 스퀘어 평택점은 지난 달 분당 판교점에 이어 연 매장으로 1번 국도를 끼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

평택과 안성 상권을 아우르는 평택점은 지상 1~지상 3층, 총 226평형 규모의 매장으로 신규 거주 유입자들에 비해 매트리스 용품을 체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가구 명소로 기대감을 얻고 있다.

각 층별로 에이스 제품 콜렉션, 스트레스리스 콜렉션, 매트리스 체험 존으로 구분해 목적에 따라 제품 관람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 조닝으로 구성됐다. 또한, 제품을 부각할 수 있는 통일감 있고 모던한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트렌드와 제품군에 변경에 따라 각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디스플레이가 가능해 소비자 중심형 가구 투어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